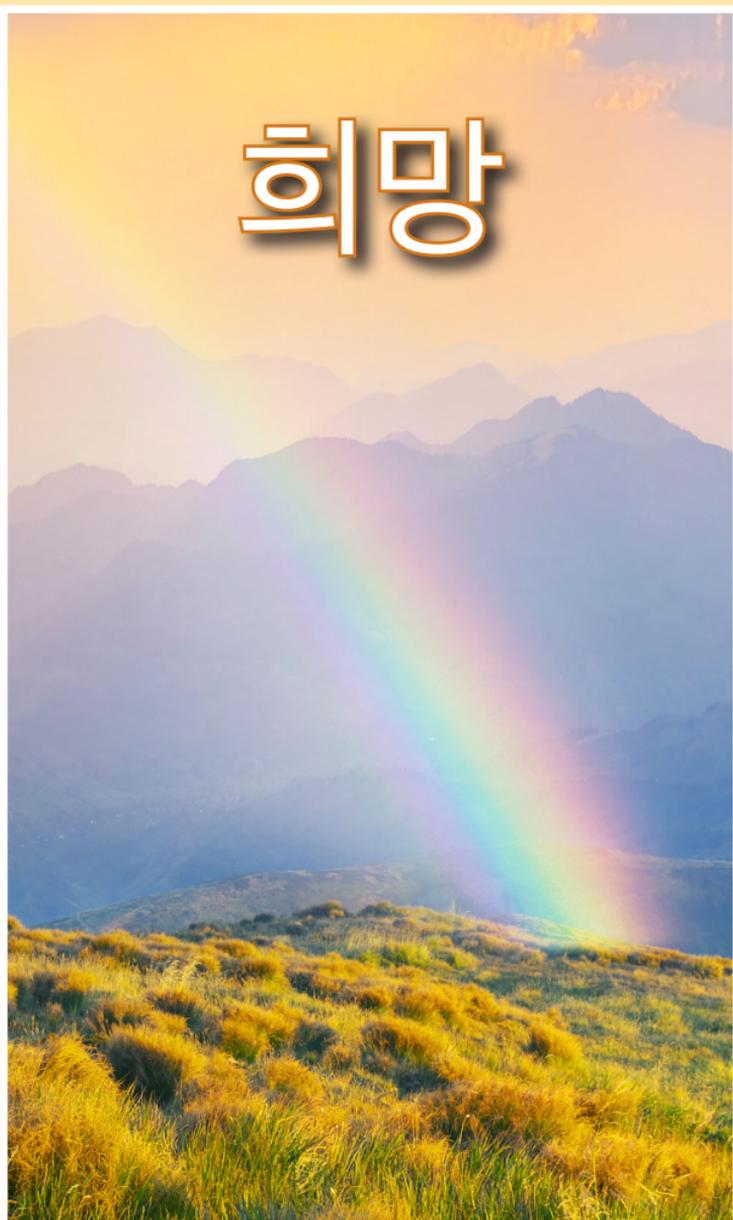


희망



희망

"마르다가 예수께 이르되, 주님, 주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냈을 때 수백만 명이 느끼는 가슴 아픈 후회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다른 의사를 불렀더라면 등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갑니다. 여행 중 사고로 사망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여행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경우, 그녀는 오빠가 죽게

된 것이 예수님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주님이 책임이 있다고 느꼈거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마르다의 이러한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했거나 죽은 사람이 특별히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떨리는 마음으로 '만약 후자가 사실이라면 지금 죽은 사람의 상태는 어떨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죽음이 가정을 방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생각과 함께 무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질문이 뒤섞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행복할까, 언젠가 우리도 그들의 행복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서 비롯되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죽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늙고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대답하고 싶겠지만, 그 대답의 약점은 수백만 명이 늙기도 전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승사자 죽음은 성자와 죄인을 가리지 않고 젊은이와 노인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든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든 그 충격은 똑같이 큼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결코 준비되지 않았으며 이 괴물에 대한 수천 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의 방문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며 항상 반갑지 않은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죽음은 언제나 부자연스럽고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죽음에 이르게 된 각 개인의 죄가 아니라 원죄, 즉 첫 부모의 죄로 인해 죽는다고 설명합니다. 사도는 이를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5:12). 유전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죽어가는 종족의 일원입니다. 죽음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이 비극적인 경험이 우리의 관심이나 관심 부족 때문이 아니며, 죽은 사람이나 남은 친척들에게 특별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죽으리라"는 성경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약속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22

평화로운 수면

예수님 시대와 베다니의 사랑하는 가족, 즉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매우 깨달음과 용기를 주는 몇 가지 생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의 특별한 친구였던 것으로 보이며,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들을 도와주러 오실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두 자매는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1:3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틀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11). 이 소식은 제자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도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깐요.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메시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자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스승이 왜 그를 깨우고 싶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주님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주님, 주님이 주무시면 나아지실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조용히 잠들어 쉬고 있는 병자를 깨우는 것은 큰 실수이며, 차라리 계속 자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기록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13).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는 자신의 언급을 오해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14). 여기서 우리는 주님 자신의 입술에서 죽음에 대한 가장 흥미롭고 동시에 위로가 되는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잠과 같아서, 죽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잠에서 깨어나실 주님의 때가 오기를, 즉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면은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적 예시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수면에는 두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잠든 사람은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슬프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걱정도 없고 기쁨의 스릴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이나 목마름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 성경은 "산 자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함이라"고 선언합니다. 전도서 9:5

잠을 죽음의 예시로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수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남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이를 밤새도록 침대에 재우고, 잠든 아이가 눈을 감고 작은 뇌가 망각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부드러운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아이는 이제 의식을 잃었고, 엄마는 아이에 대한 사랑에 행복해하며 다음날 아침 아이의 즐거운 웅얼이를 들을 수 있다는 기대에 기뻐하며 조용히 방을 나섭니다. 눈물도, 아픈 마음도, 외로움도 없습니다. 아이는 그저 잠을 자고 있을 뿐이고, 아침이 되면 다시 밝음이 집안에 스며들면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어린 소녀에 대해 예수님은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24). 여기서도 나사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 공급의 관점에서 볼 때, 곧 새벽이 밝아오는 이 땅의 새 날 아침, 즉 그리스도의 통치의 날에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단지 잠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가서 그를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11).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의 잠에서 깨우려고 하시고, 나중에 나사로의 누이들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큼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

제자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밝힌 후 예수님은 친구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향했습니다. 마르다()는 집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을 만나 오빠가 아직 살아 있는데 왜 오지 않느냐고 부드럽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후 수 세기 동안 울려 퍼져 수많은 애도객들에게 위로를 주며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네 형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한복음 11:23

죽은 모든 사람이 다시 살 것이라는 성경의 위대한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라는 단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 오빠는 정말 죽은 것이 아니니 울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이 사실을 모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오빠가 다시 살아야 하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몇 세기 전에 욥 선지자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욥 14:14). 욥이 이 질문을 하는 올바른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사람이 죽으면 정말 죽는가?" 또는 "육체가 죽은 후에도 살아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묻지 않습니다. 옘은 죽음이 현실이며, 끔찍하고 비극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옘은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며, 온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옘이 알고 싶었던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즉 "다시" 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옘과 마르다, 그리고 "네 형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의 단순한 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마르다는 이 복된 희망을 담고 있는 구약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마르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옘 선지자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라고 물은 후 그 답을 찾았고, 자신의 희망과 관련하여 "수고하는 모든 날 동안 (죽어서도) 나의 소생이 오기를 기다리리이다. 네가 부르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그리워하리라." 욥기 14:14,15

"마지막 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의 칙령으로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궁극적 운명에 대한 희망에 관한 예언에서 주님은 예언에서 라헬로 언급된 우는 어머니들에게 "네 목소리를 자제하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수고가 보상을 받을 것이니" ... "그들이 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후손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 31:16,17

마르다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가 올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들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고, 그녀는 영감받은 입술에서 나오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의심할 여지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1:24). 예, 그녀는 모든 죽은 자들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말한 "마지막 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서 "날들"이라고 부르는 기간으로 나뉩니다. 이

기간들 중 마지막 기간인 오늘날에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마지막 날'은 천 년, 즉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인 천 년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를 '하루'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에서 어둠의 시간, 슬픔과 죽음의 밤으로 언급되는 그 이전의 6천 년 동안의 인간 경험과는 대조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편 기자는 죄와 고통의 어두운 밤과 뒤따를 기쁨의 아침에 대해 "그의 진노는 잠시뿐이지만 그의 은혜는 평생 지속되나이다! 울음은 밤새도록 계속되지만 기쁨은 아침과 함께 찾아옵니다." 시편 30:5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말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보복하거나 피조물의 고통을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갇히는 고통이나 제한된 기간 동안의 '연옥'으로 표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금도 모든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18). 하나님의 진노는 전 인류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에서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5:22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시편 30:5).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와 대조됩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그들은 계속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너는 돌아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문장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19

인류는 그 이후로 계속 죽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햇살을 거두셨을 때, 인류에게 '어둠'이 내려앉았고, 그 어둠은 죽어가는 과정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느껴질 정도로 짙게 깔렸습니다. 죄와 그 결과로 인류가 경험한 이 '밤'은 참으로 통곡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길고 음산한 밤이었지만 아침이 오고 있으며, 아침이 오면 약속된 기쁨, 즉 죽음이 더 이상 희생자들을 공격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때 무한한 기쁨도 함께 올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생명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쏟아질 새 날에 온 인류에게 임할 이 놀라운 기쁨의 그림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라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한 말의 진실성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베다니의 그 집에서의 사역으로 인해 마르다의 마음속에 죽음에서 잠든 모든 사람이 깨어날 것이라는 희망이 그토록 밝았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녀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내 안에 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25,2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이다." 주님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에덴이 다시 꽃을 피우고 그 경계가 온 땅을 덮을 미래의 날에 그분이 그 일을 성취하는 신성한 능력의 통로가 되실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위대한 빛이신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9, 8:12, 9:5). 그분의 왕국 통치는 건강과 생명의 '날'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가 묘사한 "의의 태양"이 될 것이며, "치유를 날개 삼아" 떠오를 것입니다. 말라기 4:2

그리스도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 날에 내가 네 동생을 다시 살릴 사람이라는 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네,

주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세상에 오신 분,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1:26,27). 인간이 죄와 죽음에 빠졌을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1-3; 22:18).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의 "씨"라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16). 마르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약속된 그리스도는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 역시 "부활과 생명"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시대에도 4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를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죽음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일을 하실 분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실" 예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25). 여기에 모든 신자들에게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죽음이 그의 믿음이나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우리에게 "그가 죽었으나", "그러나 살리라", 즉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불확실성의 장막을 걷어내고 모든 인류를 위해 생명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날'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현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미래 삶은 그들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태양'이 죄와 죽음의 긴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온 인류에게 빛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새 날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인간으로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그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이 보장되는 천년의 날, 그 '마지막 날'에 누가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을 죽음의 잠에서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인류가 살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의인과 악인 모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4:15).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올 것이니 놀라지 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28-29). 이 성경 구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위로의 생각은 오역으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올바르게 번역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살아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정죄를 받으러 일어날 것이다"라고 읽혀야 합니다. 요한복음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합당함을 증명한 헌신된 신자들의 상급에 대한 언급입니다. (로마서 2:7). 이들은 아브라함의 '씨'의 일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통치하게 되며, 이를 통해 땅의 모든 가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27-29). 이들은 예수님을 닮아 하늘의 영광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2). 이들은 "생명의 면류관", 심지어 "신성한 본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0, 벤후 1:4).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통치하는 사람들은 죽은 수백만 명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왕국을 주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32). 죽은 자의

대다수는 신성한 관점에서 볼 때 선을 행하지 않은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죄로 죽어가는 종족의 일원으로서 죽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 대부분은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들, 즉 좋은 시민이자 좋은 이웃이었지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영생은 오직 믿음을 바탕으로만 얻을 수 있으며, 인류의 대다수는 진정한 믿음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며, 예수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관한 상충되는 이론이 너무 대부분의 정직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이 때문에 기독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의미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백만 명도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깨어남을 "구원"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4-6).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고 틀림없이 알려질 위대한 진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 즉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이 규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2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살아 있는 자", 즉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요한복음 11:26). 그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시련의 시기가 될 것이며, 영원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대한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31). 예수님께서 그들이 죽음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는 그들이 그리스어 "위기"로 묘사한 것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의로 돌아서면 다시는 죽을 필요가 없는 시험의 시간, 즉 "영원히 살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51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미래의 삶에 대한 이 놀라운 희망을 설명하시면서 "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가슴을 파고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낼 때의 괴로움과 슬픔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죽은 자의 영광스러운 귀환,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에 대해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다시 오셔서 자신이 죽으신 모든 사람을 죽음의 잠에서 깨우실 것입니다. 죽음을 영원한 망각에서 깨어날 평온한 잠으로 바꾼 것은 그의 희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문자 그대로일까요?

부활의 희망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을 문자 그대로 예시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모호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의 경우 이러한 예화 중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일반 부활의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시고 "마지막 날"에 깨어나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신 후, 마르다의 오빠의 무덤으로 가서서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를 죽음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말씀하셨고, 기록에 따르면 "죽은

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43,44). 그런 다음 예수님은 나사로가 가족 및 친구들과 다시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그에게서 무덤 옷을 벗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는 죽기 전과 똑같은 나사로가 되어 그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유명도 유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친구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친구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테이블을 기울이거나 거울을 덜컹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이제 그는 살아 있었고 그의 자매와 친구들은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는 신적 권위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기쁨의 장면을 수십억 배로 곱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가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 즉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라고 묘사한 메시지를 정당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메시아, 곧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2:10,11

소중한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내 상심이 크시나요? 남은 사람들의 삶에는 끔찍한 공허함이 남기 때문에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이별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의 기쁜 내일, 즉 이제 가까이 다가온 영광스러운 재회의 시간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지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의 큰 기쁨에 빠져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고무시키고 밤의 어둠을 헤쳐 나갈 수 있게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찾아올 기쁨을 기다리세요.